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답, 응답, 해답

-복음으로 여는 하박국-

하박국 1:1-4, 요한복음 20:27-28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까지 회복시켜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전도운동의 주역이요 제자가 되어서 나의 현장을 먼저 살리며 땅 끝까지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강단에 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자유를 받으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도마의 성격은 사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을 믿었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확인을 정확히 해야지 믿는 성격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았던 그 도마는 이때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신앙고백을 하였다. 그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다. 깊이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지금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마는 ‘나’ 자기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존심, 자기 판단을 다 깨버리고 주인을 바꿨다. 신앙 중의 최고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한 것이다.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문제를 깨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셨다. 내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이 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이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따져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응답과 해답을 주신다. 아람(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있는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눌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도 도마와 같이 의문과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씨름하다’는 의미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씨름하듯이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였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하박국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결국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이러한 믿음이 고급믿음, 초특급의 믿음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항상 답, 응답, 해답과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다 되어야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부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1. 첫 번째로 하박국의 질문과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박국서 1장 서두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죄악, 패역, 강포, 겁탈, 변론, 분쟁을 보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바벨론을 일으켜 그 악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이다. 내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다. ‘정의와 율법이 폐하나다.’ 하박국 1장 17절에 ‘정의와 율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현장에서 서밋부터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로 따지는 질문을 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냐는 질문이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고 확실하신 어조로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무엇을 판에 새기라고 하셨을까?

① 첫째로, 2장 3절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읽겠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정한 때가 있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조금해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② 우리는 승리의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19절에는 보면 바벨론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승리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다.

③ 다음으로 새길 말씀은 2장 4절 말씀이다.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를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 하박국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바벨론과 그 배후조종자 사탄과 그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또한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개인, 가문, 학업, 산업이 회복될 것을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오직 너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박국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었다.

④ 또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과 영혼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겠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믿어야 하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3)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질문의 종류와 의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질문에는 다양한 의도와 종류가 있다. 우리들이 전도현장에 가면 이러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특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질문만 바르게 해도 학업과 산업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된다. 질문에는 ① 가치 있는 질문, ② 가치 없는 질문, ③ 답이 있는 질문, ④ 답을 알기 어려운 질문, ⑤ 안 믿기 위한 질문, ⑥ 더 잘 믿기 위한 질문, ⑦ 시비를 걸기 위한 질문, ⑧ 상대의 약점을 잡기 위한 질문, ⑨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질문, ⑩ 정말로 이해가 안 되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⑪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

과 뜻이 이해가 안 되서 하는 질문, ⑫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 ⑬ 답답해서 하는 질문도 있다. 허박국의 질문은 10번, 11번, 12번, 13번이라고 볼 수 있다. 허박국의 질문은 단지 불신앙이나 원망하는 질문이 아니고, 더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서 던진 진솔한 질문이었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답과 응답과 해답을 얻은 허박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허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허박국은 '이 악한 유대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냥 두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의 악한 사람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다. 그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허박국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다. 그 중에서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때 허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 깜짝 놀라서 스스로 답을 말하고 있다. 허박국 1장 12절 말씀이다. '선지자가 이르되 ① 여호와 나의 하나님, ②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③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④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바벨론) 두셨나이다 ⑤ 반석이시여 ⑥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리가 불만, 불평할 때 그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사실 알고 있으며 핑계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면 내가 바벨론을 이용해서 칠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겠나?'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박국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지할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하는 것이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보지 않은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허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진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허박국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다. 혹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부족한 모습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된다.

(2) 두 번째로 허박국이 받은 응답과 해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참되고 바른 질문을 던진 허박국은 하나님의 답과 응답과 해답을 얻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상태이다. 현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진실,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하다. 완전복음으로 마음, 생각, 영혼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지 않으면 참된 질문을 할 수 없고 다른 말, 틀린 말, 망할 말을 하게 된다. 허박국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한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순간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내려야 한다. '나는 복음,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허박국이 받은 응답과 해답의 내용을 허박국 3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허박국 3장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박국 3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허박국이 찬양시로 기록한 내용이다. 기독교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분들은 모두 시와 찬양을 작품으로 남겼다.

①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눗에 맞춘 허박국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허박국서 3장은 찬양이면서 허박국이 남긴 진도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이다. 시기오눗은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을 가진 음악용어이고 아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이다. 3장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

님의 뜻을 이해한 허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② 또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데단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광야)에서부터 오시는데도(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3장 4절의 내용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허박국은 보좌, 시공간, 237 빛의 응답을 보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3장 5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하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앗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사탄의 나라, 세상나라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언과 환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이 모든 응답과 해답을 얻은 허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허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고백을 하고 있다. 24, 25, 영원의 기도 속에서 참된 질문을 했던 허박국은 참된 답, 응답, 해답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인 허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함께 읽겠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시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내야 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이다.' 결국 허박국은 깊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5력과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인 3서밋의 응답을 받았다. 허박국은 참된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새롭게 강단말씀의 흐름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었다.

결론으로 오늘도 허박국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절대언약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질문과 의문이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응답과 해답이 된다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답과 응답과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24시간 기도하면서 질문만 바르게 해도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지, 정,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 많은 의문과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문제를 두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보여 주실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진지하게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응답과 해답을 발견해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론을 복음과 그리스도로 내보기를 바란다.
-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참된 질문을 통하여 이 시대의 불신앙과 무지를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박국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마와 허박국처럼 어리석고 부족해서 믿음은 없고 불만 불평과 질문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직장,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